

## 공짜를 버려야 내가 산다

취업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기를 수차례, 드디어 꿈만 같았던 합격통지서가 날아들었고 그 기쁨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다. 학창 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며 오매불망 취업만을 기다리고 있던 나로서는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꿈꿔온 ‘인생 2막 직장생활’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특히, 생각지도 못한 공짜의 유혹에 빠져 혼란과 갈등을 거듭하였다.

신입 직원인 내게 처음 맡겨진 업무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었다. ‘그저 정해진 법률 절차에 따라 보상하거나 선임의 업무지시를 따르면 되겠거니’ 생각했으나,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도로예정지가 과수원 일대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상황, 본격적인 보상에 앞서 현장 기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일전에 조사해 간 단감나무 수량이 부족합니다.” 민원전화가 울렸다.

“그럴 리가요? 경계에 가지만 걸려도 모두 헤아렸고 총 155주가 편입됩니다.” 나의 답변은 아랑곳 않고 어르신은 집요하게 다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셨다.

수목 하나하나에 노끈을 묶어가며 확인한 결과는 오히려 5주를 감해야 하는 실정, 단감나무 1주의 보상단가가 25만 원이라는 감정 시세를 감안하면 무려 보상금 125만 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어르신은 자식 연배밖에 되지 않는 내게 이번에는 애걸하듯 부탁하셨다.

“없었던 일로 해 주세요. 도로 건설로 과수원이 양분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시며, 봉투 하나를 꺼내어 내 주머니에 밀어 넣으셨다. 돈일 거란 생각에 몸 둘 바를 몰랐으나 다른 한편, ‘보는 사람도 없는데 눈감아 드릴까? 공동으로 나도 즐기고, 상부상조 아닌가?’ 웅졸한 생각이 엄습했고, 새까맣게 그을린 어르신의 주름살과 평생 농사일만 해 오신 아버지 모습까지 교차하며 갈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 온 직장인데’ 불철주야 책과 씨름한 날들이 떠오르며 나는 냉정을 되찾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수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고 내 눈치만 살피셨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어르신의 모습이 아른거려 울적함을 가눌 길 없었으나,

생애 첫 유혹을 이겨낸 자긍심으로 마음 한쪽은 잔잔히 미소를 드리우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 이번엔 고추·딸기·수박 등이 심겨진 200여 동의 대규모 하우스 단지를 보상해야 했다. 대부분의 소유자는 보상금에 대한 관심보다 반토막 난 하우스만으로는 영농이 어렵다며 전체보상을 요구하였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편입 후 남은 하우스의 유형별로 세부 보상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른 아침, 어르신 한 분이 내가 출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다. 기계화 설비를 갖춘 하우스의 절반 이상이 편입되고 책정된 보상금액만 1억2천만 원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하우스 소유자였다. 어르신 역시 남은 하우스만으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보상을 요구하셨고, 이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생 많습니다. 이 정도는 내게 푼돈입니다.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하시며 종이가방을 불쑥 내미셨다.

수북한 지폐몽치를 본 순간, 나의 두뇌는 어느새 탐욕 어린 경우의 수를 셈하기 시작하였다. ‘수립한 보상 기준에 따르면 하우스의 절반 이상이 편입되었으니 당연히 보상 가능하다. 내 월급의 몇 배가 되는 저 돈이라면 실컷 즐길 수 있다. 때마침 사무실에는 나 혼자뿐이다. 잔여 하우스의 보상금액만 무려 1억 원인데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른 한편, ‘들통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불안감으로 가슴은 심히 쿵쿵거렸고, 이래선 안 된다는 양심의 불멘 목소리가 물밀듯 밀려왔다.

‘일전에도 거뜰히 이겨냈는데 초심으로 일관해야지.’

마침내, “어르신!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잔여 하우스 보상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정중히 사양했다.

며칠 후 공식적으로 서면 민원이 접수되었고, 부장님은 “하우스 규모가 너무 크므로 별도로 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하자.” 고 지시하셨다. 당초 수립한 보상기준과 달리 위원회 개최결과는 ‘수용 불가’로 결정되었고, ‘후유!’ 나도 모르게 안도의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만약, 당시 셈했던 경우의 수만 믿고 덤석 돈을 받았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취업의 기쁨도 잠시, 직장 파면·가정 파탄 그리고 비리자로 낙인찍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사업 준공 이듬해, 현장을 둘러보던 중 낯익은 하우스가 눈에 띄었다. 다름 아닌 보상 불가 결정했던 바로 그 하우스로 예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하우스 영농을 계속하고 있었다.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거구나! 보람과 기쁨 그리고 감격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불혹의 나이가 될 즈음이었다. 여름휴가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업체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한 잔, 두 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취기가 올랐고, 헤어질 무렵 그는 평상시 업무 관계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얼마 되지 않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알코올 기운 때문이었을까? 순간 돈일 거란 직감을 했으나 주저함도 없이 받아 버렸다. 숙소로 돌아와 취기 어린 손으로 신권 50만 원을 만지작거리며 술자리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돌이켜 보았다.

‘특별히 도와달라는 부탁도 없었고, 돈 봉투는 이미 내 수중에 있다. 이미 받아버린 걸 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술기운을 가장한 탐욕이 강하게 일었고, 그것을 숙소 한구석 나만의 공간에 숨겨두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날 이후, 50만 원 봉투가 눈에 아른거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밤늦도록 쉽사리 잠을 청하기가 어려웠다. ‘청렴을 저버리고 산다는 건 정말 어렵구나!’ 고심 끝에 돌려주기로 맘을 먹고 그를 찾았다. “지난번엔 제가 경솔했습니다. 받았던 돈 돌려 드리러 왔습니다.” 쑥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그는 괜찮다며 극구 만류했지만 나의 고집에 못 이긴 채 “제가 오히려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해하며 되돌려 받았다.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가 부자연스럽고 황망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가 퇴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너무나 아쉬웠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죠?” 나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주었고, 지난날 휴가비를 안주 삼아 직장인의 애환과 신세 한탄을 이어갔다. 그리고 헤어질 무렵, 어색해진 상황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취기 어린 나의 손은 이번 식대 결제를 위한 계산서를 꼭 쥐고 있었다.

서로의 인간미에 매력을 느끼며, 요즘은 계약관계가 아닌 지인으로서 또래의

그를 만나고 있다. ‘만약 휴가비 50만 원에 양심을 팔았다면 지금의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행여나 어려워진 업체 분위기에 휘말려 구설수(口舌數)에 오르내리지는 않았을까?’ 뒤늦게나마 주인을 찾아간 휴가비 명목의 돈 봉투가 새삼 고맙게 느껴졌다.

입사 20년, 그토록 갈망했던 팀장 승진의 영예가 찾아왔다. 설렘을 안고 발령지로 출근한 첫날,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창가에 난(蘭) 하나가 보였다. 누가 보냈을까? 이름 석 자가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팀장 되니까 역시 다른걸!’ 묘한 생각에 도취되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팀장님! 안녕하세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낮은 목소리의 전화벨이 울렸다. 난(蘭)을 보낸 바로 그분이었고 알고 보니 그는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이었다.

며칠 후 부하직원으로부터 자재 대금 청구서류에 100만 원이 담긴 봉투와 ‘팀장님! 변변치 않습니다. 직원들과 삼겹살파티 한번 하세요.’ 라는 메모장이 끼워져 있음을 보고 받았다.

나름 청렴하게 살아왔노라고 자부했던 그간의 자존감이 일시에 구겨지는 순간이었다. 즉시 은행 계좌로 반환시켰고, 아울러 “시대와 공직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하며 따끔한 일침도 전했다. 결국 그와는 피상적·상투적 대화만 나누는 냉랭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연락마저 끊겼으나 후회는 없다. 공돈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마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아무리 능력 있는 공직자라도 청렴하지 못하면 직장·가족·행복 모두를 잃게 된다. ‘금품·향응 받은 간 큰 공무원 징역형’, ‘금품수수 공무원 파면 정당’ 모두가 탐욕에 눈멀어 청렴을 잃은 자들의 종착지를 보여주는 토픽 기사들이다. ‘왜 청렴하게 살아야 하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우리 모두가 뉴스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공짜에 눈멀지 않고 항상 청렴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공무원·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일명 ‘공시생’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일터를 그만큼 부러워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내가 더욱 청렴하게 일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주인을 잃은 채 저만치 시들어 버린 ‘초화’가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인다. 마치 청렴하지 못해 버림받은 공직자의 말로(末路)처럼…….